



# 6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6월** 이면 간간이 여름철 더위를 느낄 만큼 계절적으로 성큼 여름으로 다가서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장마철이 겹치게 되므로 높은 습도가 문제되어 각종 병원균 및 곰팡이의 증식이 많아질 수 있으며 사료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다. 더구나 이번 여름은 더위가 일찍 찾아온 관계로 더위와 관련되는 제반 문제점들이 빨리 나타날 수 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 되기전인 6월에는 미리 더위에 대한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 혹서기 대책을 완료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관리를 하도록 한다.

## 1. 시설부분

- 1) 방목장에 수욕장을 마련하고 주변에 차광망 설치하여 일사병을 방지한다.
- 2) 모돈의 목부근을 향하게 하여 점적시설 및 송풍기 덕트를 설치하고 웅돈방에도 스프링 쿨러를 설치한다.
- 3) 전 돈사에 송풍기를 설치한다. (공기순환 목적)



이재춘 원장

(한국양돈컨설팅 그룹, 한별 피그 클리닉)

4) 가정용 선풍기를 (이동식) 준비해 두었다가 (모돈 100두 기준 3대 이상) 분만시 심하게 헐떡이는 모돈에게 틀어준다.

5) 스톨사, 분만사에 직사광선 유입방지용 차광망 설치

6) 분만사에 물 호스를 비치해 두고 식욕부진 모돈이나 분만 전후 모돈에게 수시로 강제급수

해 준다.

7) 분만사 입식 모돈의 체표 세척 및 약욕 시설을 갖춘다.

8) 돈사 천정 단열재 보강(상황에 따라 돈사 지붕에 물 살포)

9) 돈사내에 온, 습도계 비치하여 환경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온, 습도의 기록을 습관화하여 내 농장의 여름철 평균기온 및 최고온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0) 물탱크는 돈사마다 설치하여 충분한 급수량 및 예비량을 확보한다.

11) 육성사 습식급이 돈방에 별도의 넛플을 설치한다. 보통 비육돈 10두에 급수기 1대 비율로 설치한다. (15두 수용 돈방에는 급수기 2개 설치)

12) 포유자돈 전용넛플, 또는 별도의 음수공급

## 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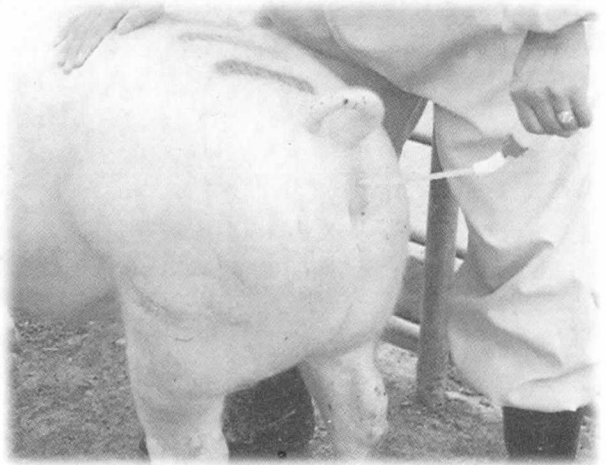
- 13) 포유모돈 급이기 내에 급수배관 설치
- 14) 피드빈 단열 (7일이상 간격으로 사료 신청하는 경우)
- 15) 농장내 배수로 점검 (폭우 대비)

## 2. 사양관리 부분

- 1) 현황관 설치후 철저한 기록관리를 한다.
  - 모돈 : 이유후 교배 지연돈, 임신돈 사고후 미교배돈 등의 비생산일수 경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이 유지 되어야 한다.
  - 웅돈 : 웅돈의 교배 횟수 및 교배 간격을 조절 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농장에서 활용율이 저조하다.
  - 후보돈 : 초발정 유도 및 초교배 예정일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관리를 하므로써 초교배 일령이 늦는 개체를 선별하여 별도로 관리해줄 수가 있다.
  - 비육돈 : 일령별 증체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 2) 포유모돈 사료급여 횟수를 조정해 준다. 일 2회에서 일 3 ~ 4회 급여로 전환.
- 3) 식욕부진 모돈은 급여횟수를 증가하고 사료를 신선한 물과 함께 연사한다. 가급적 시원한 시간대에 사료를 급여한다.

식욕부진 모돈은 체온측정을 하여 39.5°C를 넘지 않도록 해열제, 항생제, 진정제 및 수액처치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
- 4) 모돈에 비타민제, 미네랄 제제를 추가로 공급한다. (청초급여)
- 5) 임신말기 모돈의 체형을 유지한다. 특히 과비를 방지하며, 음부 및 유방이 부을 경우는 즉시 사료를 감량한다.
- 6) 분만예정일 최소 7일 이전 새벽에 분만사로 이동한다.
- 7) 분만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분만 유도제, 옥시토신)

특히 분만유도제의 경우 교배기록이 정확히



▲더위로 인해 불시에 저하될지도 모르는 정액 질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수정을 적극 활용한다.

유지되지 않으면 활용할수 없다.

- 8) 초산돈, 과비돈은 분만직후 해열제와 항생제 주사
- 9) 분만사 내의 초산돈을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하고 특별관리를 한다.
- 10) 웅돈관리 : 정액검사, 웅돈방 수세 소독, 포피세척, 계란과 영양제 급여, 노령웅돈 도태, 웅돈의 정액화 (10~28개월령으로)
- 11) 교배는 가급적 시원한 시간대에 맞추어 실시한다.
- 12) 교배시 자궁농 예방 철저 (교배전 모돈 외음부 세척, 웅돈 포피 세척, 1회용 비닐장갑 착용)
- 13) 교배완료한 모돈은 즉시 시원한 곳에 격리 (스틀로 이동후 물을 뿌려 준다)
- 14) 교배후 4주간 임신돈 특별관리 (7월~9월 사이에 사료 3.0~3.5kg/일 급여)
- 15) 이유모돈은 스팀로 이동, 이유시 비칸톨 주사, 이유후 영양제 급여
- 16) 이유후 발정지연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 지연돈 발생을 최소화 한다.
- 17) 더위로 인해 불시에 저하될지도 모르는 정액 질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수정을 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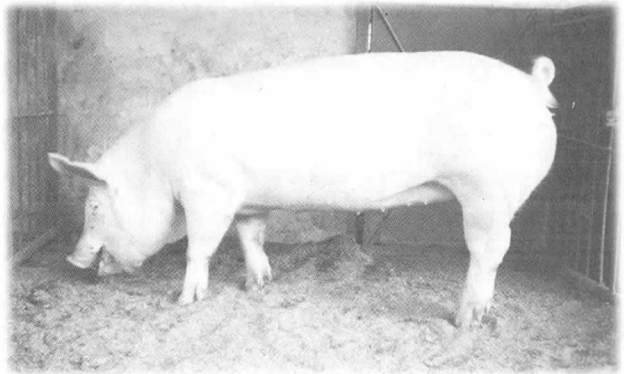
활용한다.

18) 돈사주변 잡초제거 (복사열 차단, 해충서식처 최소화)

19) 문제 모돈의 조기 색출 및 도태 (임신진단 및 전산관리의 적극적인 활용)

20) 가급적 밀사 방지

21) 매일 급수기 또는 닛플 점검, 주 1회 이상 사료 급이조 청소 (1일 1회 육성, 비육돈의 사료통 비우기)



### 3. 방역 부분

- 1) 일본뇌염 1, 2차 접종 (전체모돈, 웅돈에 접종, 후보돈은 지역별로 9~10월 까지)
- 2) 돈콜레라, 돈단독, 파보백신 철저
- 3) TGE 백신은 연중 철저히 접종한다.(모돈군의 면역도를 높이기 위해서임)
- 4) 임신돈의 백신 접종 스트레스를 최소화 해야한다.
- 5) 자돈에 호흡기 백신의 접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 가을철 환절기 및 겨울철 호흡기질병의 발생율을 줄인다.
- 6) 온도, 습도의 증가로 인한 세균증식을 억제 (예 : 대장균증) - 청결유지, 소독
- 7) 주기적으로 음수소독을 실시한다.
- 8) 방목, 청초급여로 인한 기생충 감염 기회가 증가하므로 내외부 구충을 철저히 한다.
- 9) 분만사 입식모돈, 외부구입돈 약육 실시
- 10) 상비약품 : 강심제, 해열제, 진정제, 유도분만제, 링겔수액 등

### 4. 경영부분

후보돈의 확보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여름철 교배복수의 증가를 위한 후보돈의

▲8, 9월 초교배 예정 후보돈의 도입은 6월에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매년 7, 8월에 도입된 후보돈의 초발정이 지연되는 현상이 여러 농장에서 관찰되기 때문이다.

도입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후보돈의 발정유도를 위한 관리 체계에 대한 구상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후보돈을 평상시 보다 약 30~50% 정도 늘려 확보하도록 한다. (전체 모돈의 12~15%)

2) 8, 9월 초교배 예정 후보돈의 도입은 6월에 하는 것이 좋다. 늦어도 7월초까지는 도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 이유는 매년 7, 8월에 도입된 후보돈의 초발정이 지연되는 현상이 여러 농장에서 관찰되기 때문이다.

3) 발정 유도를 위한 웅돈의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수정의 보급으로 웅돈의 보유두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농장은 여름철에 모돈의 번식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재귀일수 증가, 미약발정, 산자수 저하 등...)

적정 웅돈 보유비율은 후보웅돈 포함하여 자연교배시 12 : 1, 인공수정시 30 : 1 정도로 한다.

4) 인력 추가 확보 (7~9월)

5) 각부서별 체계적인 작업계획 수립 및 실천

6) 기록을 철저히 유지하고 분석하여 생산

7) 생산목표 작성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작업의욕을 고취한다.

8) 6월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생산목표 수립 **養豚**